

IT 산업과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

차 성 란 (대전대 아동벤처산업학과 교수)

1. 문제의 제기

지금까지 가족자원경영학에서의 정보는 둘이나 그 이상의 사람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대인적 자원이라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로 한다는 정도로 다루어져 왔다.

정보가 효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진행되어 온 정보의 디지털화는 정보기술(IT)산업 또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발전과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의 보편적 이용에 힘입어 한 사회의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변화시키므로써 그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정보는 산업사회에서 부와 노동력이 생산의 원천으로 제공되었듯이, 새로운 부가가치 생산의 요소로 등장하였다. 정보사회는 정보가 생산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사회를 일컬으며, 이러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이전은 제 2의 산업혁명이라 할만큼, 한 사회의 경제시스템을 시점으로 사회, 문화, 정치적인 생활 전반에서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일대 변혁은 사회경제구조의 단절론 또는 연속론의 양립적 주장이 대치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실현, 정보격차 등 시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의사소통의 전자화에 따른 인간관계의 비인격화, 타인에 대한 감정적 이해의 부족, 제도적으로는 느슨하면서 개인의 자율을 보장하는 네트워크 가족의 등장(조정문 외, 1999), 자녀의 컴퓨터 과다 이용으로 인한 부모세대와의 세대간 갈등(함인희, 1986)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이버라이프(권용무, 2001), 그에 따른 가사노동의 감소 및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증가, 통신매체 활용을 통한 가족구성원간 의사소통과 친밀감의 증대, 그리고 가족내 다툼이나 갈등의 원만한 해결(조정문 외, 1999) 등 긍정적인 결과를 전망하기도 한다.

한편 가족자원경영학은 그간 대학의 구조조정, 실천성에 대한 회의, 학문적 기여도에서의 문제, 직업적 선택에의 연관성 부족 등으로 많은 도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간 가족자원경영학의 학문적 정체성 면에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신경제 패러다임이 작

용하는 정보사회, 그리고 정보화를 촉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정보기술산업 시장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공자들이 새로이 다가오는 정보사회에서 어떠한 발전적 변화를 시도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정환경은 그에 대한 긍정적 적응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화의 동인, 변화의 양상, 변화에 대한 성공적 적응을 위한 연구 및 실천적 적용이 요구된다. 그러한 변화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지각변동은 실천적 연구로의 방향전환을 필요로 하는 가족자원경영학의 입장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변화의 측면이라 하겠다.

이에 가족자원경영학이 당면해 있는 위기적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IT 산업의 특징 및 그것이 가정생활 내·외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합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에의 성공적 적응을 위한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가족자원경영학이 받아 온 학문적 도전

가족자원경영학은 가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효율적 경영을 통해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학문이다. 가족자원경영학이 받고 있는 도전적 상황은 의류학, 주거학, 소비자학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가정학의 위기적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가족자원경영학의 학문적 도전은 가정학 및 가족자원관리학에 대한 학자들의 반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과의 명칭은 다소 상이하지만 전국의 가족자원경영 관련 학과들은 다른 학문분야나 학과, 또는 교과목에 통합, 흡수될 가능성에 대해 위기감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 연구(이기영, 1986; 유영주, 강완숙, 1996; 정영금, 1999; 박명희, 2000)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가정학의 과제라 할 수 있는 실천적 지향의 실현에 대한 회의이다. 즉 가정학의 연구들이 개별 가족과 가정의 입장에서 생활향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또는 가족과 관련된 국가정책입안 및 기업활동에 가족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자료나 의견을 제시했는가 하는데 대한 의구심들이다.

이론적인 면에서도 연구의 양적인 증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개인과 가족을 단순히 환경에 순응시키는 적응적 가치와 도구적 합리성의 추구에 치중하여 주체적인 문제의 인식과 능동적 대처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다(유영주, 강완숙, 1996)

하지만 가장 위기적 상황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는 전공자의 제한적 취업기회에 따른 전공수요의 감소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성취업이 이미 보편화된 사회적 상황에서 교육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직업적 지위, 경제적 보상 등을 기대하는 대부분의 신세대 여성들에게 취업과 직결되지 못하는 대학전공의 선택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3. IT, 디지털 경제, 그리고 정보사회

정보란? 어떤 사물, 상태 등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수신자에게 의미있는 형태로 전달되어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것과 같이 수신자가 의식적인 행위를 취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최동수, 1998)을 말한다.

가족자원경영학에서는 정보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능한 행동과정 혹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기준으로 간주한다(임정빈 외, 1994). Foa의 이론에 따르면 정보자원은 자원의 교환으로 자원량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원교환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문제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사람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대인적 자원이라는 점이다. 정보사회에서 통신매체를 통한 기계적 상호작용에 의해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므로써 대인간의 정서적 작용은 감소하고 있지만 자원교환을 위한 네트워크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한편 정보사회에 대해 Porat(1977)은 경제활동이 정보상품과 서비스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노동력의 대부분은 정보상품을 서비스로 생산, 처리, 분배, 전달하는데 종사하는 경제구조를 갖는 사회를 정보사회로 정의하였다. 김문조(1989)는 지식을 포함한 모든 정보의 생산, 전달 및 활용을 포함하는 인간활동이 전체 사회활동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를 지칭한다고 하여 두 사람 모두 경제적 관점에서 정보사회를 개념 정의하였다. Martin(1995)은 생활수준, 노동과 여가의 형태, 교육체계와 시장 모두가 정보와 지식의 발전에 큰 영향을 받아, 사회변동과 경제발전은 물론 생활의 질이 점점 더 정보 및 정보의 이용에 의존하는 사회라 하여, 복지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정보사회는 정보가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되어 고도로 발달된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처리 전달하는 행위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고 개인 및 가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정보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정보민들에게 만족감과 효용의 원천을 제공하는 정보를 양적, 질적인 면에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관리하며,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삶의 대처방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가 어떻게 중요한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정보사회는 컴퓨터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발전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은 디지털화된(digitalized)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혁신하였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인터넷의

확산이 공통적인 힘을 발휘한 것이다.

개인이나 가족자원경영을 담당하는 관리자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처리, 가공, 축적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최동수, 1998). 이를 정보활동이라 하며, 정보기술은 이같은 정보활동 과정에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개인적, 업무적, 사회교육적 측면에서의 요구들을 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심지어는 후각적인 자극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보기술을 산업적인 면에서 구분해 보면 정보인프라 산업, 정보제공산업, 정보가공산업, 정보이용산업의 위계적 구조를 갖는다. 정보인프라 산업과 정보이용산업은 정보기술 중 하드웨어 제조 및 네트워크 시설설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적용 등과 관련된 분야로서 공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이에 비해 정보제공산업은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관련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 집합을 의미한다(임춘성, 2000). 정보사회 초기에는 개인이나 소규모의 정보제공 사업자들이 컴퓨터 통신 회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정보제공 계약을 맺고 해당 메뉴에 정보를 제공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신문 등 언론 출판 산업을 포함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산업, PC통신 IP산업, 정보 브로커 산업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TV, 신문, 잡지, 컴퓨터 통신, 인터넷, 팩시밀리, ARS(자동응답시스템), 핸드폰 등의 매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가 제공된다.

정보가공산업은 각종 매체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을 가치있는 정보형태로 가공하여, 이와 관련된 각종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자 집합을 의미한다. 정보가공산업에는 영화, 방송, 라디오, 출판 등 각종 미디어 산업, 인터넷 콘텐츠 프로바이더 산업 등이 해당된다.

정보사회가 진행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활용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굳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활동으로서의 정보활동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자신의 관심사를 콘텐츠화하여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사례, 비영리적이거나 또는 영리적인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 등은 산업의 범주에서는 벗어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종의 정보활동이다.

4. 가족자원경영학에 주는 함의

정보사회가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은 질적으로 수준높은 사이버 라이프를 가능하게 하므로써 개

인과 가족원들의 생활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미래학자나 사회학자들의 정보사회에 대한 미래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가족자원경영학의 새로운 기회발굴을 위한 과제라는 차원에서 정보사회의 특징과 미래의 전망을 살펴볼 수 있겠다.

우선 정보사회는 첫째, 창의력과 감성적 능력이 힘을 발휘하는 사회이며, Hard Society에서, Soft Society로 성격이 바뀔에 따라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둘째,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새로운 대화방식으로 등장함에 따라 정보사회는 수직적, 직선적 관계에서 수평적, 연결망적 특징을 갖는 사회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을 갖는 정보사회의 미래는 낙관적인 전망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산업사회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부의 불평등, 환경적인 고갈 등의 부산물도 남겼다. 정보사회 역시 새로운 생산요소로 부각되는 정보자원의 소유 및 활용 정도, 정보기술산업의 발전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를 해결과제로 안고 있다.

첫째, 정보사회는 새로운 생산요소인 정보의 소유 및 활용 여부에 따른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야기한다. 산업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이 정보불평등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우리에게 정보활용도의 제고를 통한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긴다.

디지털 정보의 활용은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족의 오락 및 여가 생활, 의료 시스템, 문화생활 등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정보에의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개인 및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격차는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여성, 특히 전업주부, 노인, 장애인 등의 정보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보접근성이나 정보활용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흥미있는 정보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들을 개발, 시행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은 여러 측면에서 노동시장 환경을 변화시킨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메카니즘, 경제적 합리성의 논리가 변화한다. 이는 전통적인 유통직, 사무직에서의 고용감소를 일으키며, 다른 한편으로 정보기술산업, 지식기반산업에서 새로운 직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 결과 노동의 이동성이 증대되며, 고용이나 채용형태가 다양화될 것이다.

직종간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에 다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파견직, 계약직 등 비전통적인 고용형태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직업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되지만 상대적인 취업기회의 제한을 받아왔던 기혼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직업적 대안이 다양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차적인 가사노동의 책임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가정생활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여성들이 융통성있는 근무시간을 채택할 수 있으므로써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원거리 근무나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해주므로써 여성의 직업적 기회를 늘려준다. 소규모의 자본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가정을 직업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SOHO, 컴퓨터 한 대만으로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활성화 등을 단편적 사례로 들 수 있다.

5.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

가족자원경영학은 그간 전공자의 직업적 기회가 제한된다거나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의 부족, 등 실천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어왔다. 그것이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산업사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은 유연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사회에서는 하물며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대학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현장성 확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찬호, 1993). 상아탑의 고고함을 과시하려는 지적 허영을 버리고, 현장세계를 체험하며,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대학의 교육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교육적 시각이 강조되는 바이다.

개인 및 가족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므로써 정보사회의 새로운 사이버라이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자원경영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수용해야 할 변화의 조건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사회경제적 환경과 관련하여 가정체계에 대한 소비자적 관점을 생산자적 관점으로 변화시키도록 한다.

학문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단지 이론적 관점에서의 변화로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시각적 변화는 추구해야 할 가족자원경영학의 목표를 변화시킬 것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변화된 적극적 대처 방법을 통해 전공자들의 직업적 기회나 지역사회봉사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실천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경제적 구조와 시장환경이 바뀌어가면서 자급자족적인 가정, 용역형의 가정, 그리고 시장의존형의 가정으로 변화해 왔다. 가정체계의 생산적 역할이 약화되고 가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점점 더 시장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로서 가계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은 의사소통의 방식을 쌍방향의 네트워크형으로 전환

시켰고, 이는 정보사회에서의 가정체계를 더 이상 정보의 수용자로서 머물지 않고 능동적인 정보의 생산자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이버라이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족원들은 다양한 창조적 정보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실리콘 벨리에서는 이미 “집과 직장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가정과 직장의 공간적 융합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함인희, 1996), 더 이상 가정은 소비의 장소로만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사용되어 왔던 prosumer라는 용어는 정보사회에서 더욱 그 개념이 확실해지고 있다.

정보사회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종만이 가능해지는 직업적 불안정성이 높은 사회이다. 가족자원경영학에서는 이제 가정체계가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생산자, 획득자로서 안정적인 역할수행을 할 수 있으며, 평생직장이 보장되지 않는 직업 세계에서 다중과제(multi-tasking)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적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정보산업의 유형을 참고로 할 때, 정보가공산업, 정보제공산업에서의 직업적 기회는 정보생산자로서 새로운 대안적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가족자원경영학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미 식품영양, 의류, 아동학 등의 분야는 가정상품(Household Commodity)의 사회화에 따라 학문적 영역을 산업화된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취업의 범주를 넓히고 있다(이기영, 1986)

둘째, 정보사회에서 보여지는 사이버라이프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한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적 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분석평가된 결과와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보사회에서는 사회, 경제, 문화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개인과 가족원들의 생활양식이 사이버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된다.

정보사회에 대한 미래전망에서 많은 학자들은 정보사회가 가져다줄 가정생활에서의 부정적인 변화, 즉, 의사소통방식의 변화에 따른 인간소외, 인터넷 중독, 네트워크형 가족 등을 예측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가정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전의 출현으로 편안한 삶을 가능케 하며, 다양한 근무형태, 근무장소의 공간적 제약의 극복, 사이버공간 상에서의 커뮤니티활동, 등 산업사회와는 상당히 다른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가족자원경영학 전공자들은 정보사회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부적응이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이버라이프의 생활양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치관과 규범을 정립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적, 실천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생활양식을 문화의 일부로 볼 때 정보사회에서의 생활양식은 정보문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문화는 “정보사회를 구성하는 적합한 문화형태로서 정보화에 대한 가치문화, 규범문화, 도구문화를 포괄하는 것(노규형 외, 1988)”, “정보사회에서의 생활총체, 행동양식, 정신(강대영 외, 1993)”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시도된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정보문화 개념 하에 정보문화운동을 의식 및 문화, 도구 및 행동, 사회 및 제도의 세가지 차원에서 이론적 구조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정보사회에서의 사이버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가족자원경영학에서의 연구 및 실천 방안의 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정보문화의 이론적 구조 및 가족자원경영학에서의 적용사례

차원	범주		가족자원경영학에서의 적용사례
의식, 문화	정보화 마인드 확산	정보윤리, 문화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소외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 자살사이트, 포르노 사이트 등 정보사회 부적응 행동을 위한 교육 · 이상적 사이버 라이프 스타일의 형성을 위한 모델 개발, 이벤트 행사화
도구, 행동	정보 리터러시 제고	정보의 대중 화, 생활화 촉 진(보편적 서 비스와 보편 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주부, 취업주부, 가족기업경영자, 여성기업인 등 사이버커뮤니티 활동 · 자녀교육, 재무관리, 가족관계, 가사노동, 부부역 할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사이버교육 및 상담 활동 · 재택근무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문제해결 · 정보접근성예의 장애물 제거를 위한 노력 · 정보의 생활화를 위한 흥미있는 프로그램 개발 ·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작성 · 정보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사회교육 활동가 배출 · 다양한 주제를 통한 NGO활동 · 활발한 HEIB활동
사회, 제도	정보화 불균형 해소	정보복지구 현 및 법, 제 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견된 문제점을 기초로 정책수립에 반영

출처: 정보문화센터(1997)를 참고로 제작성

셋째, 정보산업 진출 가능성 확대를 위한 교과 및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가족자원경영학에서는 정보사회의 핵심적 생산요소인 정보가 중요한 자원관리의 대

상으로 다루어져 오지 않았다. 가사노동이나 시간과 같은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는 산업사회의 경제적 발전의 결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중요한 자원관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자원의 상대적 중요성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전됨에 따라 노동에서 시간으로, 시간에서 정보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가정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가족자원경영학에서 교과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할 비중은 이제 정보자원으로 옮겨져 왔다.

정보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과목 내용을 비롯하여, 새로운 디지털 경제환경으로의 전이에 따라 변화된 노동시장환경의 특성 -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직업적 능력에 필요로 하는 과목들을 새로운 교과목으로 추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와 같은, 유동성있는 형태를 택하므로써 직업적 기회가 증가되는 점, 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을 갖는 소규모 가족기업의 창업, 새로운 직종으로서 정보가공업, 정보제공업 등 직업적 대안의 탐색 및 요구되는 인력개발에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도록 한다.

특히 정보산업은 정보통신관련 전공자에게만 취업의 문을 개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정보산업 중 정보제공산업이나 가공산업에서 양질의 콘텐츠 가공 및 제공, 기획 등은 해당되는 콘텐츠 분야의 전공자들이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션플러스 사이트에서는 패션 전공자가, 우먼플러스 사이트에서는 가족자원경영학 전공자가, 아동도서 사이트에서는 아동학 전공자가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정보, 고객이 원하는 정보,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 기획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과 산업현장을 접목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는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들이 교환되고, 이동할 수 있는 일종의 도로망이다. 네트워크의 외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계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감으로써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산업현장 종사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산업현장 종사자들이 교육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써 생기는 네트워크, 교육계 관련자들이 산업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생기는 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가능하다.

최근 한국인터넷 기업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일하는 e-여성의 모임’을 발족(한국정보문화센터, 2001)하였다. 이 모임은 승진, 창업, 마케팅, 네트워킹 등과 같은 직업적 경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 그리고 탁아 교육, 용역 서비스, 공동 구매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적 네트워크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가족자원경영학 전공자들은 정보산업 종사자들간의 부족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 워크샵 개최, 가족자원경영학의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콘텐츠 상담, 소규모 가족기

업 상담 등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족자원경영학 전공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실전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정보산업관련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인턴제 취업 등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자연적으로 교육계와 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구성하며, 대학을 졸업하는 전공자들의 취업기회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6. 결어

정보의 디지털화,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 인터넷 활용의 보편화와 같은 정보사회의 움직임들은 산업사회의 경제구조적 특징을 와해시키며, 새로운 경제패러다임과 사회문화, 노동, 교육, 여가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 생활의 질이 점점 더 정보 및 정보의 이용에 의존되는 사회로 변화해간다.

지금까지 정보사회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정보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가족자원경영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보라는 자원을 단지 인적자원의 하나로서만 다루어왔으며, 정보사회에서의 생산요소로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그에 이은 사회문화적 변화의 모습, 그것이 가족자원경영학에 갖는 의미나 도전과제로서는 눈여겨 오지 않았다.

가족자원경영학이 갖는 실천적 한계라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의 변화된 특징들을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족자원경영학의 학문적 연구대상인 가정체계를 생산자적 관점에서 바라다 보고 새로이 다가오는 정보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직업적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점

둘째, 새로이 나타나는 사이버라이프의 생활양식의 바람직한 이상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생활의 질 향상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족자원경영학은 직업적 기회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봉사활동이라는 실천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셋째, 정보산업으로의 진출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교과목의 개발과 실질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

넷째, 교육과 산업현장을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

끝으로 가족자원경영학 전공자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산업혁명에 이은 사회경제적

변화는 비교적 선후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허용했다. 정보사회는 속도가 성공의 관건이라 할만큼 변화와 영향력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즉,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변화의 속도를 감당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용무(2001), 새로운 삶의 방식 - 사이버라이프, 미래산업리포트 21, 전경련 지식 경제센터,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공동기획, 한국경제신문.
- 김기옥(1999), 정보사회와 생활과학: 도전과 기회, 1999, 대한가정학회
- 김문조(1989), 정보화사회의 성격 및 노동세계의 변화, 정보사회연구 1권 1호
- 김찬호(1993), 정보화 시대에서 대학의 자리, 연세대학교 방송대학 논문집 V. 18.
- 김흥기(2000), 디지털 시대의 직업능력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디지털 경제연구회(2001), 알기쉬운 디지털 경제, 매일경제신문사
- 디지털 지식혁명, 매일경제신문 편, 2000, 매일경제신문사
- 매일경제신문(2000), 디지털 지식혁명, 매일경제신문사
- 박명희(2000), 가정관리 분야연구의 사회적 기여 - 실천 학문적 특성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권 1호, 185-194.
- 삼성경제연구소, 디지털 충격과 한국경제의 선택, 2000
- 유영주, 강완숙(1996), 가정학의 반성적 고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한 시론 I,
- 윤덕호(1997), 생활과학과 정보통신, 한국생활과학회 1997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기영(1986), 가정관리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연구방향, 대한가정학회지
- 임정빈 외(1994), 가정관리학, 학지사.
- 임춘성, e-Biz.Lab 저(2000), -임춘성 교수의 e-Business File, 영진Biz.com
- 전경련 지식경제센터 &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공동기획(2001), 미래산업리포트 21 한국경제신문
- 정영금(1999), 가족자원관리학, 누구를 위한 학문이었나?, 한국가정관리학회 26차 학술대회 자료집.
- 조정문, 임정덕, 김성국, 이대식, 김영삼, 조영복, 신종국(1999), 정보화시대의 공동체-가족규범의 변화, 한국사회학 33집, pp. 389-415.
- 최동수(1998), 정보사회론, 법문사

- 최두진 외(1997), 정보화의 지형변화와 정보문화 확산의 새로운 전개방향, 1997, 한국정보문화센터,
터,
한국정보문화센터(2001), 정보화로 가는 길, 한국정보문화센터
함인희(1996), 정보화사회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연구, 정보통신학술연구과제 95-33. 이화여자
대학교
Martin, W.(1995),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Asib Gower.
OECD(1999), The Economical and Social Impacts of Electronic commerce: Preliminary
Findings and Research Agenda, OECD
Porat, M.(1977), The Information Economy, U.S. Department of Commerce.